

세종대학교 201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모범 답안

[문항1] 사물이나 사건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제시문 (1)~(4)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관점을 기술하시오.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제시문 (1)~(4)는 주관적 관점을 강조하는 (1)과 (4), 그리고 객관적 태도를 강조하는 (2)와 (3)의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1)은 익숙한 풍경이라도 관점을 달리 하여 바라보면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눈으로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4)는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나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 꽃이라는 대상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임을 표현하여 주관적 관점을 보여주었다.

한편 (2)는 개와 같은 큰 짐승에 대해서만 연민의 마음을 갖는 손님의 주관적 견해가 편협함을 지적하며 개나 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동등한 가치를 갖는 생명임을 주장하였다. (3) 역시 ‘머피의 법칙’과 같이 자신의 심리적 바람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함을 역설하며 객관적 태도를 피력하였다. (450자)

[문항2] 위에서 분류한 두 개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옹호하고, 옹호하는 관점의 제시문을 모두 논거로 활용해 다른 관점을 비판하시오. (1,100~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A. (1)과 (4)의 관점 옹호

사물이나 사건, 또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 주체의 주관적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진 주체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틀에 박히지 않은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잔의 차, 한 송이의 꽃처럼 평범한 대상을 통해서도 삶의 큰 위로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즉 주체의 능동적인 의미 부여와 가치 창조 활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2)와 (3)의 객관적 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째, 소위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기준 역시 관점을 달리하여 바라보면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능한 관점들 중 하나일 수 있다. (1)의 필자는 세상은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며, 이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점 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사에 열린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개와 이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보편타당한 도(道)로 간주하는 (2)의 입장 역시 보편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 또한 (3)의 필자는 버터 바른 토스트의 낙하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했으므로 머피의 법칙과 같은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머피의 법칙은 과학적 원리 외에도 심리적 측면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단지 과학적 원리만으로 세상의 일들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4)의 주장대로 우리가 삶에서 맺는 관계는 상호간의 특별한 가치 부여 행위에 토대를

세종대학교 201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모범 답안

두기 때문에 우리 삶의 관계적 측면은 결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2)의 주장대로 개와 이는 생명체라는 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나에게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의 풍부한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개와 그렇지 않은 이를 대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무시한 관점이다. (3)은 ‘머피의 법칙’이 우리가 세상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겨난 비합리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하였지만, 자아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세상과 나의 관계 맺음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가치 부여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196자)

B. (2)와 (3)의 관점 옹호

사물이나 사건, 또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 주체의 객관적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는 우리가 왜곡된 인식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관적 인식은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감정적 해석, 자기중심적 해석에 치우치지 않고 사태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관적 관점을 강조하는 (1)과 (4)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째, 세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은 일관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판단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2)에서 강조한 대로 개와 이의 생명이 갖는 가치를 주관적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우리는 결코 보편타당한 ‘도(道)’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1)의 필자는 똑같은 산과 호수도 거꾸로 보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해 준다고 하여 주관적 판단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지만, 거꾸로 자기 기분에 따라 세상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 또한 (4)의 필자는 의미 부여를 통해 대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했지만, 역으로 이는 오직 주관적 신념에 근거해 대상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한 평가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인식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주관적 관점에 치우칠 경우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사건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의 필자는 남의 눈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눈’으로 보면 세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자기 눈’에만 의지할 경우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버릴 위험성이 크다. 즉 (3)에서 말한 대로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일은 늘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식으로 비관하며 근거 없는 원망을 품게 되는 것이다. 또한 (4)의 필자처럼 존재의 가치를 그 자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에 의해 재구성된 가치만을 인정할 경우, 스스로에게 유익한 존재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무관한 존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147자)